

● 민주당

환경문제 해결없이는  
경제발전 어렵다

1 민주당의 환경정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배출부과금제도는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맞는 차등부과제를 도입하고 오염이 심각한 대도시, 공단지역부터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모든 기업에 환경담당 중역이나 부 또는 과를 두고 기업별로 공해배출 삭감 목표를 설정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실적을 보고하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환경관리인들에게 불합리한 양벌제도를 개선하고 환경기능사 제도를 신설하여 환경관리인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2 수량과 수질, 상수도과 하수도 등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업무를 한강관리청과 같이 수계별로 통합 일원화해서 맑은 물 공급대책의 효율성을 높ی겠다. 상습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도시와 공단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총량규제를 실시해서 맑은 물과 공기를 되찾을 계획이다.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보다 재사용, 재사용보다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쓰레기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밖에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장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문제, 제주도 종합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고갈·오염문제 등은 14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국회에 환경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3 8월 31일 현재 미정.

4 민주당은 사무총장 산하에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환경국이 있다. 그러나 여당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국장과 부국장 그리고 두명의 부장이 주로 환경오염에 관련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해서 현지조사 활동을 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환경옴부즈만 이라고 부르는데 스웨덴은 일찍부터 남녀평등 옴부즈만 같은 제도를 두고 행정부가 하기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에 환경 담당 전문위원이 있고 국회에는 보사분과위원회가 있다. 민주당은 이 3개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현지조사 활동을 벌이고 대안을 개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한다.

또 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와 상임위 대정부질의 또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입법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잘못을 추궁하고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5** 민주당은 13대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팔당호 상수원보호 구역의 골재채취 현장조사, 설악산 자연과과 현장조사,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 현지조사,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현지조사 등 활발한 현지조사 활동을 통해서 환경문제가 있는 곳은 전국 어느곳이든 찾아가 주민과 함께 문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을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 또는 입법활동을 통해서 민주당의 환경정책으로 반영시켰다.

민주당이 발의한 7개 환경관계법안 중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머지 법안도 정부안에 대부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90년대 환경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환경정책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들도 이제 잘 알고 있다. 서울에서 하얀 와이셔츠는 이틀 이상 입기가 힘들고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넘치는 쓰레기는 갈 곳이 없다. 환경문제는 날씨얘기 만큼이나 일상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각해진 책임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나누어 져야 하지만 특히 정부의 잘못이 많다. 지난 30년 동안 여섯 차례의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투자는 지나치게 소홀히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정부와 기업도 환경문제의 해결없이는 경제발전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하면 맑은 물과 공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리우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기와 물, 쓰레기, 산림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소리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나라밖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이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제기 보다는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도 좀더 많은 시간을 조사, 연구활동에 투자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을 폭넓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들을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촉구하는 비판 기능도 소홀히해서는 안되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당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당은 격려해 주고 반대로 게을리 하는 정당은 채찍질하면서 환경단체들이 바라는 환경정책과 입법을 여당과 야당이 서로 앞다투어 추진해 나가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젠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제기 보다는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도 좀더 많은 시간을 조사, 연구활동에 투자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을 폭넓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